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

Swedish Government Promotes Gender-Equal Parental Leave

송지원, 스톡홀름 경제대학 경영학 박사과정

1. 머리말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증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육아휴직 사용의 양성평등 구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부모할당제 도입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끌어올렸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남성의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0.5%에 그쳤던 197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글에서는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최근 변화와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을 근거에 기반해 실현하려는 스웨덴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

가. 육아휴직제도의 변화 과정

1974년에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개정했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1974년 기준 0.5%)을 촉진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긴 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육아휴직의 양성평등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자 다수가 여전히 여성이라는 점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육아휴직 정책과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스웨덴 정부는 1995년에

표 1. 육아휴직 기간 중 스웨덴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

연도	여성(%)	남성(%)
1974 년	99.5	0.5
1980 년	95	5
1985 년	94	6
1990 년	93	7
1995 년	90	10
2000 년	88	12
2005 년	80	20
2010 년	76.9	23.1
2013 년	75	25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2013). De jämställda föräldrarna [Equal parents], Socialförsäkringsrapport 2013:8. Försäkringskassan. p.10.

각 부모에게 육아휴직을 1개월씩 할당하는 일명 부모할당제(mammamånader, 'pappamånader')를 도입했다. 부모할당제는 당시 450일이었던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 각자에게 30일씩 육아휴직을 할당한 제도이다. 2002년에 육아휴직 기간이 480일로 확대되면서 할당 기간도 각각 60일로 확대되었다.¹⁾ 부모할당제의 도입과 확대에 따라 총육아휴직 기간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1990년 7%에서 2013년 25%로 증가했다(표 1).

나. 2016년 이후의 육아휴직 개정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는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완전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1월에 육아휴직제도를 다시 개정했다. 스웨덴 정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가사 부담과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2016년에 개정된 육아휴직제도는 60일이던 각 부모의 육아휴직 할당 기간을 30일씩 추가해 90일로 확대했다. 스웨덴 정부는 할당 기간의 확대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

1) 스웨덴 사회보험청(2013). De jämställda föräldrarna [Equal parents], Socialförsäkringsrapport 2013:8.

직 사용 증가가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스웨덴 사회보장청(Försäkringskassan)은 2016년 육아휴직 개정안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사회보장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남성이 2016년 1분기 육아휴직 혜택의 27%를 사용했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²⁾

다. 양성평등 육아휴직의 영향

스웨덴 정부는 남녀 간의 불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의 소득, 노동시장 내 위치, 건강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15%에 가까운 남녀 간 소득 격차, 여성의 높은 시간제 근로 비중,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여성의 잦은 병가 사용 등을 근거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 이에 따라 스웨덴 정

부와 사회보장청은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사회, 경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지난 30년간 스웨덴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는 남녀 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다룬 연구였다.⁴⁾ 여성의 삶과 근로생활이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남녀 간 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은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 등의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여성의 자기만족도와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스톡홀름 대학의 안 소피 두반데르(Ann-Zofie Duvander) 연구원은 부모할당제 확대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사회보장청의 한 연구는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육아휴직

2) The Local(2017). More dads taking paternity leave. <http://www.thelocal.se/20170217/more-dads-taking-paternity-leave-family-sweden>에서 2017. 8. 15. 인출.

3)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7). Adapt parental insurance to suit modern working life. <http://www.government.se/opinion-pieces/2016/02/adapt-parental-insurance-to-suit-modern-working-life/>에서 2017. 9. 5. 인출.

4)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2016). 12th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6. http://www.leavenetwork.org/fileadmin/Leavenetwork/Annual_reviews/2016_Full_draft_20_July.pdf에서 2017. 9. 5. 인출.

5) Economist(2014). Why Swedish men take so much paternity leave. <http://www.economist.com/blogs/economist-explains/2014/07/economist-explains-15>에서 2017. 8. 15. 인출.

의 사용 빈도, 기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공공 부문에 일하는 남성일수록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이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 밖에 최근 스웨덴의 육아휴직 사용 사례에 대한 가족이슈저널(*Journal of Family Issu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이 남녀 간 불평등하게 이뤄질 경우 부부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부부 각자가 느끼는 적절한 육아휴직 기간과 실제 사용 기간의 차이가 부부 관계의 만족도, 자녀 계획, 부부 관계의 지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했다.⁷⁾ 그 결과 다수의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기를 원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스톡홀름 대학의 마리아 브란덴(*Maria Brandén*) 연구원은 육아휴직의 양성평등한 사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부조차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의 40% 이상을 남성이 사용

했다고 밝힌 경우는 응답자 중 남성 20%, 여성 15%에 불과했다.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 기간 분배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해당 연구에 참여한 남성 중 약 25%는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불만족은 가족과 부부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가정에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지만 육아휴직을 만족할 만큼 사용하지 못한 남성이 배우자와 결별한 비율이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만족했던 남성에게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불만족은 부부가 다음 아이를 갖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3. 시사점

스웨덴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완전한 양성평등의 구현이다. 여러 연구 결과 남녀의 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양성평등 사회에 일조할 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6) 스웨덴 사회보험청(2013). De jämställda föräldrarna [Equal parents], Socialförsäkringsrapport 2013:8.

7) Maria Brandén, Ann-Zofie Duvander, Sofi Ohlsson-Wijk (Forthcoming). Sharing the Caring: Attitude-Behavior Discrepancies and Partnership Dynamics. *Journal of Family Issues* (Forthcoming). DOI: <https://doi.org/10.1177/0192513X16680013>.

8) The Local(2017). Share parental leave evenly if you want your relationship to last, Swedish study shows. <https://www.thelocal.se/20170704/share-parental-leave-evenly-if-you-want-your-relationship-to-last-swedish-study-shows>에서 2017. 8. 15. 인출.

가족 유지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양성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을 강조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와 이를 위한 스웨덴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이

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나 사용에서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